

2011.09.19 미래정책연구실

□ 미국, 옥수수 생산량 감소에 따른 식품물가 상승 우려

1. Financial Times(2011.09.12), Reuters통신(2011.09.09) 주요 내용

- 지난달 미국의 '콘벨트(Corn Belt)' 주요 산지에 닥친 극심한 폭염으로 금년 옥수수 생산량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식품물가 상승 우려가 재기되고 있음.
 - 옥수수 생산량 감소 전망(2011.9 기준, 1부셀 약 27kg)
 - ※ 전체 생산량: 125억 부셀(약 3억 3,750톤), 8월대비 3.2% 감소
 - ※ 에이커당 수확량: 148.1 부셀(약 4톤), 8월대비 4.9부셀(132kg) 감소
 - 아이오와주립대의 채드 하트(Chad Hart) 교수는 “현재 미국의 옥수수 공급 상황은 매우 불안정하다”며 “옥수수뿐만 아니라 다른 곡물 공급 상황도 여의치 않다”라고 언급함.
- 이 같은 전망은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곡물수출 중단 조치를 해제한 데 따른 효과를 반감시키며 옥수수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음.
 - 시카고선물거래소(CBOT) 12월 인도분 옥수수 가격은 지난달보다 1.2%, 작년 동기보다 58.9% 상승한 부셀당 7.45달러를 기록함.
- 시장에서는 미국의 생산량 감소 전망에 따라 **옥수수 가격이 조만간 부셀당 8달러 선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**, 지난 4월(7.52달러/부셀)에 기록했던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내다봄.
- 한편, 로이터에 따르면, **FAO**는 국제 곡물가격이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고공행진이 이어지면서 각 국가들은 고물가와 불안정한 경제성장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함.
 - 55가지 품목을 대상으로 한 세계 식량가격지수는 8월에 전월 대비 0.8포인트 떨어진 231.1포인트를 기록했지만 이는 지난 2월 기록됐던 사상 최고치보다 겨우 3% 낮은 수치로 여전히 높은 수준임.
- 아울러 파이낸셜타임즈는 이러한 식품물가 상승세가 미국과 유럽 등 서구권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고 밝힘.

- 서구권에서는 그동안 저성장과 소득정체가 인플레이션에 제동을 걸어왔지만, 최근 1년간 미국의 식품물가는 5.4% 급등함.
- 식품 컨설팅업체 어드밴스트 이코노믹 솔루션(Advanced Economic Solution: AES)의 빌 랩(Bill Lapp) 대표는 “식품물가 상승으로 지난해 발생한 비용은 300억 달러에 달하지만, 소비자에게는 아직 이 비용이 전가되지 않았다”며 “식품회사, 요식업체, 소매업체, 축산업자 등이 결국 언젠가 이 비용을 떠안게 될 것”이라고 밝힘.

※ 자료 작성: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래정책연구실